

# 조배숙 “文, 대북문제 잘 풀었지만 다른분야 엉망”

### “실업급여 수급자·지급액 사상 최고치...참담한 일자리 성적표”



민주당 6·13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4층 브리핑룸에서 민생캠프 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조배숙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배숙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북문제는 잘 풀었지만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는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 참석해 “대북문제를 잘 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실업급여 지급액은 각각 82만8000명, 1조4000억원으로 둘 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한 이 정부의 참담한 일자리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출 경제도 빨간불이 켜졌다. 4월 수출액은 500억6000만달러로 1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재고율은 1998년 IMF의 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이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검찰과 경찰은 드루킹 수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드루킹이 피해자라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특검거부는 이윤배반적”이라며 “상대방의 적폐는 정산대상 내 적폐는 비호대상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집 나간 자유한국당은 즉시 돌아와서 국회를 정상화시킬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광주 북구의회 전·현직 의장 “조오섭 지지”

### “정치인 출신 구청장 필요하다는 판단”



광주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인 심재섭 의원, 김상훈 후반기 의장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 후보, 김 의장, 심 전 의장.

광주 북구의회 전·현직 의장들 이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

주 북구청장 당내 경선에 나선 조오섭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

다. 북구의회 제7대 전반기 의장인 심재섭 의원, 김상훈 후반기 의장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 의장 경선을 바탕으로 북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치인 출신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지 선언문에서 “12년 동안 정체와 답보 상태에 놓인 북구의 발전을 이끌고, 광주역 활성화와 첨단3지구 개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등 지역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후보로 조 후보가 적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지방선거는 북구가 발전할 기회로, 조 후보는 재선 광주시의원으로 경제, 일자리, 환경, 복지, 교통, 건설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의정 활동으로 검증된 후보”라며 “정치력과 행정력을 검증받은 조 후보의 당선과 북구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 허석 민주당 순천시시장 후보 ‘시민 대통합 제안’

### “갈등 해소시키고 화합 위한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시장 경선에서 선출된 허석 후보가 시민대통합을 제안하고 나섰다.

당 후보 선출 이후에도 아침 출근인사 등 시민들을 향한 접촉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허 후보는 경선과정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서로의 갈등을 털고 이제 화합의 길로 함께 갈 것을 호소했다.

허석 순천시시장 예비후보는 “남북 정상회담을 보면서 두 정상도 시대 요구에 따라 이제 손을 잡고 평화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면

서 “선거로 지역민심이 갈라지고 싸우지만, 끝나면 우리는 같은 순천시민으로 돌아가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허 후보는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갈등을 해소시키고 화합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중립적인 시민단체 인사들이 중심을 잡고 리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허석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재학 시절 전우환 독재정



권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참여했고, 노동운동에 충성을 바쳤으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전남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 정영덕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본격 선거운동 돌입

###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료...지지자 1000여 명 응원



정영덕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무안군수 후보가 민주당 후보 경선 승리를 원동력으로 1일 오후 2시 무안읍에서 성황리에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하고 지지자 1000여 명의 응원 속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은 이기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무

안군 선거 출마자 등과 정영덕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실에 몰렸고, 미처 선거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한 지지자들이 건물 밖과 인근에 운집하는 등 정영덕 후보에 대한 무안군민의 높은 기대를 보여줬다.

이기호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정영덕 후보와

저는 전남도청에서 같이 공직생활을 했다”며 “정영덕 후보는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분야에서 거의 학자 수준이고 교수 수준으로 경쟁을 할 사람이 없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영덕 후보는 인사말에서 “더불어민주당 무안군수 후보 자격을 갖추고 사무실 개소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께 감사를 드린다”며 “또한 저와 경선을 치른 세 분의 후보자들의 아름다운 동행에도 감사와 위로에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선거를 치를 것이며 군수에 당선되면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오직 군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일할 것을 8만 군민께 약속드린다”며 “희망이 절망으로 변해버린 무안을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비전으로 잘사는 무안 풍요로운 무안, 희망이 샘솟는 무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재선 도전장

민주당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이 2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로써 동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승자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후보 간 큰 틀에서 3자 대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3·7

희망약속’을 제시했다.

우선, 품격있고 풍요로운 동구 구현을 위한 3가지 약속으로 ▲문예특구 ▲4차 산업혁명 대비 문화융합특화지역 조성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제시했고, 안전·행복 동구 구현을 위한 3대 공약으로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고령친화 도시 조성을 강조했다.

또 지속가능한 동구발전 7대 공약으로 ▲중단없는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건강 선도도시 조성 ▲주민우선형 일자리 창출 ▲주민친화형 마을공동체 육성 ▲주민공감형 복지지원 ▲주민소통형 행정편의 제공을 발표했다.

김 청장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22년동안 근무해온 검증된 행정전문가, 일 잘하는 구청장에게 구정을 다시 한번 맡겨줄 것을 호소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Drawing 이호동

**Together** 광산구